

## HEADLINE NEWS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지적 재산 활용을 촉진하도록 지원 (가나가와縣/요코하마)

일본 가나가와縣과 요코하마市는 2005년도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지적재산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각각 시작한다. 가나가와縣은 외부단체를 통해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특허취득 과정을 도와준다. 그리고 요코하마市는 제조업의 특허뿐만 아니라 영상콘텐츠 등의 저작권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의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이러한 시책들을 경제 활성화에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한편, 가나가와縣은 가나가와 중소기업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관련 상담을 받으며, 그중에서 유망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변리사와 특허유통 조연자 등 특허관련 전문가를 파견한다. 2005년 4월부터 6개월 내에 10개 회사에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이다.

([www.nikkei.co.jp/news/retto/20050308c3b0803q08.html](http://www.nikkei.co.jp/news/retto/20050308c3b0803q08.html))

## HIGHLIGHTS

### 도시관리

- 바람을 이용하여 전기공급이 가능한 '에코타워Eco Tower' 계획 수립 (영국: 에든버러)
- 오리클센터가 '올해의 수변공간'으로 지정 (영국: 레딩市)

### 도시환경

- 열(熱)환경 지도 작성과 열섬 (Heat Island)대책 추진지역 지정 (동경)
- 시민에게 가까이 있는 녹지 보전을 위한 요코하마 협동삼림기금' 창설 (요코하마)
- 도시개발 시 오픈스페이스 의무확보기준 강화 (캘리포니아州: 랜초코도바市)

### 도시교통

- 시가지 도로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흐름 관리 계획 추진 (시카고)
- 차량의 주행속도 모니터링을 위해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 추진 (아랍 에미리트 연합)
-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옷에 부착하는 발광체를 아동들에게 배포 (워싱턴州: 올림피아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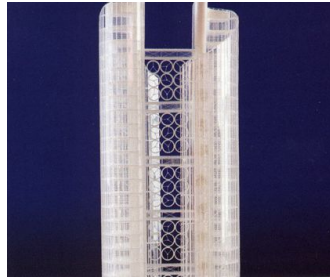
### 사회복지·문화

- 퇴역경찰관에 의한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순찰활동 개시 (오사카)
- 자치단체가 재활보조 로봇 개발 (일본: 아이치縣)
- 도심 속의 다양한 건축물들을 찾아가는 도시답사 프로그램 시행 (덴버)

### 행·재정

- 지역경제 활력과 생명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생명과학 혁신센터' 건립 (미국: 뉴올리언스)
-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촉진에 기여하는 비영리단체 지원 프로그램 시행 (샌디에이고)

### ① 바람을 이용하여 자체 전기공급이 가능한 ‘에코타워(Eco Tower)’ 계획 수립 (영국: 에든버러)



45개의 풍력 터빈을 25층 건물 사이에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남는 전력은 지역에 되파는 ‘에코타워(Eco Tower)’ 계획이 영국 에든버러(Edinburgh) 수변공간 개발의 일환으로 발표되었다. 이 계획의 창의성과 친환경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이 지역 자치단체와 환경단체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다. 풍력 에너지를 이용한 85m의 주거타워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와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에코 타워를 설계한 RMJM 대표는 밝혔다.

(Planning, 2005. 3. 25)

### ② 오리클센터가 ‘올해의 수변공간’ 으로 지정 (영국: 레딩市)

British Waterways 협회는 영국 레딩(Reading)市에 위치한 오리클센터 수변공간 재개발을 올해의 ‘수변공간 르네상스’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선정하였고, ‘재개발’ 상을 수여하였다. 이전의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공간을 쇼핑센터와 주거지 그리고 레저시설 지역으로 성공적으로 변모시킨 오리클센터 수변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British Waterways 협회는 시상식에서, 수변공간은 지역주민과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도시와 시골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Panning, 2005. 3. 25)



### 3 열(熱)환경 지도 작성과 열섬(Heat Island) 대책 추진지역 지정 (동경)

일본 東京都는 2004년 4월에 23개 구부(區部)에 대해 열섬(Heat Island)의 발생 원인이 되는 인공 배열과 지표면 피복 상황 등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열부하) 등을 표시한 '열환경 지도'를 작성, 이에 근거하여 '열섬대책 추진지역'으로 구부 내에 4개소를 지정하였다. 앞으로 이 열섬대책 추진지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민간재개발 등에 대한 대책 유도과 도로의 보수성(保水性) 포장, 벽면의 녹화, 학교운동장의 잔디밭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이 추진 지역은 정부의 '지구온난화·열섬대책 모델지역'에 채택되었기 때문에 정부시책과 연계하면서 대책을 추진해 갈 예정이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5/04/20f4b1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5/04/20f4b100.htm))

### 4 시민에게 가까이 있는 녹지 보전을 위한 '요코하마 협동삼림기금' 창설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는 시민에게 가까이 있는 소규모의 수림지(樹林地)를 보전하기 위해 시민과 행정의 협력하여 '요코하마 협동삼림기금'을 창설하였다. 법제도상의 보전책이 희박한 소규모의 수림지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되는 것으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시민에게 가까이 있는 숲을 지키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시민이 모은 자금과 市의 기금을 합쳐 수림지를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들이 수림지를 관리하고 市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한다.

([www.city.yokohama.jp/me/shimin/kouhou/674/001-1.html](http://www.city.yokohama.jp/me/shimin/kouhou/674/001-1.html))

# 도시 환경/도시 교통

## ■ 세계도시동향 ■

### 5] 도시개발 시 오픈스페이스 의무확보기준 강화 (캘리포니아주: 랜초코도바市)

미국 캘리포니아 랜초코도바(Rancho Cordova)市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개발 시 일정한 면적의 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개발업자들은 도시개발 시 1,000명의 주거인구당 7에이커의 공원과 도시 면적 10%의 오픈스페이스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더욱이, 새로운 규정은 오픈스페이스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습지나 녹지공간들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오픈스페이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의 규정에는 도시개발 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의무가 없었으며 1,000명당 5에이커의 공원만 확보하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은 이에 비해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exposingnewhomebuilders.typepad.com/newhomebuildersnewsblog/2005/week9/](http://exposingnewhomebuilders.typepad.com/newhomebuildersnewsblog/2005/week9/))

### 6] 시가지 도로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흐름 관리계획 추진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에서는 시가지 도로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흐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Moving Chicago Faster'라고 명명된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내 전역의 2,900여 개 교차로에 교통흐름을 감지하는 카메라와 센서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버스우선신호시스템과 광역적인 차원에서 교통지체를 최소화하는 신호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가변 교통안내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혼잡구간 우회도로 정보도 제공하고, 市소속 견인차량을 상시 운영하여 사고차량을 신속하게 처리, 교통지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市는 이러한 계획 수립을 위해 동경, 휴스턴, LA 등 교통흐름 관리의 모범적인 도시의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기도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부 교차로에 한해 시범으로 실시하며, 1단계 사업으로 1,500만 달러에 이르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cbs2chicago.com/siteSearch/local\\_story\\_073172259.html](http://cbs2chicago.com/siteSearch/local_story_073172259.html))

### 7 차량의 주행속도 모니터링을 위해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 추진 (아랍 에미리트 연합)

아랍 에미리트 연합 교통당국은 차량의 주행속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차량에 이른바 ‘블랙박스(black box)’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향후 5년 이내에 절반으로 줄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블랙박스’에는 차량의 위치와 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GPS 장치와 저장되는 정보를 관계당국으로 보내기 위한 통신장비 등이 구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주행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어설 경우 자동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 과속운전 행태를 억제할 계획이다. 차량의 통행패턴 정보는 단지 정부기관에서만 사용될 예정이나, 렌터카 등에 대해서는 상업용으로도 한정하여 쓰일 수 있다. 관계 당국은 내년 중으로 장비를 개발하여 장착할 예정이다. (news.com.com/2102-7341\_3-5671522.html?tag=st.util.print)

### 8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옷에 부착하는 발광체를 아동들에게 배포 (워싱턴주: 올림피아市)

미국의 워싱턴주 교통부는 최근 올림피아市의 ‘Safe Routes to School’ 행사에서 옷에 붙이는 발광체 1,000여 개를 아동들에게 배포하였다. 보행자 옹호 시민단체인 ‘Feet First’와 공동으로 벌인 이 사업은 보행의 위험성을 줄여 걸어서 통학하도록 권장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13%의 아동들만이 자전거 혹은 보행으로 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광체는 특히, 야간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어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이 발광체의 사용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교통사고 사상률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보고가 있으며, 핀란드에서는 2003년 1월부터 야간에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www.expressseek.com/addpr/show\_details.php?id=1470)

### 9 퇴역경찰관에 의한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순찰활동 개시 (오사카)

일본 오사카市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시립 초등학교에 모니터가 딸린 인터폰과 자동 잠금장치 등을 설치한다. 또, 지역과 학교 관계자가 안전지킴이를 조직하는 등 학교·가정·지역이 일체가 되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6월부터는 보다 기동성 있게 안전대책을 실시하고자 퇴역경찰관을 ‘(가칭)어린이 안전지도원’으로 고용하여 순찰활동을 개시한다. 어린이 안전지도원은 1인 평균 8개교의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등을 담당하며, 순찰 및 경계활동 등 학교에서의 방법훈련 지도와 관할경찰서와의 연계를 도모할 예정이다.

([www.city.osaka.jp/media/shisei/2005\\_4/month/index.htm](http://www.city.osaka.jp/media/shisei/2005_4/month/index.htm))

### 재활보조 로봇 개발 (일본: 아이치縣)

일본 아이치현(愛知縣)은 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장애의 기능회복을 위해 재활보조 로봇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운동요법 등을 로봇이 대신 도와줌으로써 이학요법사(理學療法師)의 부담을 줄여주고,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안에 개발에 착수하여 2007년까지는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활보조 로봇의 개발은 아이치縣의 기술연구기관인 아이치縣 산업기술연구소가 대학의 기계공학과 의학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진행하며, 예산으로 200만 엔을 계획하고 있다.

([www.nikkei.co.jp/news/retto/20050407c3d0701507.html](http://www.nikkei.co.jp/news/retto/20050407c3d0701507.html))

# 사회복지·문화/행·재정

## ■ 세계도시동향 ■

### ④ 도심 속의 다양한 건축물들을 찾아가는 도시답사 프로그램 시행 (덴버)

미국 덴버시는 2005년 4월 16, 17일에 도심의 건축물 곳곳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인 'Doors Open Denver'를 무료로 열어, 80개의 귀중한 건축물과 잘 알려지지 않은 보물들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역사적 건물과 현대적 건물을 모두 볼 수 있었으며, 개별답사와 전문가가 동행하는 답사가 있었다. 주요 건축물들은 주지사 관저와 쿠어스 필드(Coors Field: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 콜로라도 로키스의 홈구장)를 비롯, 역사유적지, 고층빌딩, 예배당, 저택, 학교 등 덴버의 명소들이다. 시는 행사가 열리는 주말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심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방문객과 시민들의 관람과 여행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www.denvergov.org/doorsopendenver/default.asp](http://www.denvergov.org/doorsopendenver/default.asp))

### ④ 지역경제 활력과 생명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생명과학혁신센터' 건립 (미국: 뉴올리언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는 경제를 다각화하고, 생명과학기술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명과학혁신센터(BioInnovation Center)'를 건립한다. 시의회는 생명과학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선정했고, 이 센터를 통해 200개의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되어 시의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분야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의료분야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세계 일류도시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생명과학혁신센터가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해 기업체와 시민들을 다시 유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cityofno.com/portal.aspx?portal=1&load=~PortalModules/ViewPressRelease.aspx&itemid=2494](http://cityofno.com/portal.aspx?portal=1&load=~PortalModules/ViewPressRelease.aspx&itemid=2494))

###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촉진에 기여하는 비영리단체 지원 프로그램 시행 (샌디에이고)

미국 샌디에이고市는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촉진에 기여하는 비영리·면세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발전과 관광지원 프로그램(EDTS)'을 시행하고 있다.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EDTS 프로그램은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에 중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비영리·면세단체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EDTS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먼저 관련법률 규정에 의해 비영리·면세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단체들이 샌디에이고에서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제, 고용 또는 관광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해왔어야 한다. 단체의 활동은 샌디에이고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샌디에이고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이 활동이 직접적으로 경제 및 관광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단, 비영리·면세단체 가운데 대학교, 전문대학, 교육구(school district), 재단, 그리고 민간교육사업체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EDTS 프로그램 지원서는 소기업자문위원회(Small Business Advisory Board)와 기업 및 관광산업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검토한다.

([www.sandiego.gov/press/050112a.shtml](http://www.sandiego.gov/press/050112a.shtml))